경기 어려운데…中企 대출금리 또 '꿈틀'

은행권 올들어 상승 전환…우리銀 한달새 0.37%P ↑

전문가 "당분간 상승세 지속"…신보 대출 문의 급증

광주 하남산단에서 플라스틱 금형제품 공장을 운영하는 김모(59)씨는 요즘 은행 이자때문에 고민이 많다. 지난해 4월에 빌렸던 시설자금의 대출금리가 높아지면서 은행 비용이 만만찮게 들어가기 때문이다. 경기도 어려운데 매월 높은 이자를 내다보니 죽을 맛이다.

가뜩이나 불황인 상황에서 시중은행들의 중소기업 대출금리가 꿈틀거리면서 중소기업들의 자금조달 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8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IBK기업・KEB하나・KB국민・NH농협・신한・우리·광주 등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금리는 지난 연말까지 하락세를 보이다가 올 1·2월 상승세로 전환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그 가운데 우리은행의 금리가 작년 12월 5.19%에서 2월 현재 5.46%로 무려 0.37%포인트 뛰어올라 가장 큰 폭의 오름세를 기록했다.

KEB하나는 같은 기간 0.18%포인트 상승하며 그 뒤를 바짝 쫓았다.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도 각각 0.17%포인트, 0.01%포인트 올랐다.

시중은행 중 신용대출 금리가 가장 높은 편인 국민은행은 작년 10월 6.97%에서 12월 6.24%로 내린 뒤 2월에도 6.40%로 같은 수준을 유지하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NH농협은행과 IBK기업은행도 0.12%포인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지역은행인 광주은행은 지난해말 4.96%를 기록했으나 12월 이후 상승세를 타며 5.06%, 5.10%(1월), 5.14%(2월)로 올랐다.

중소기업에 대한 마이너스대출(신용한도대출) 금리도 심상찮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월 현재 KEB하나은행의 중소기업 마이너스대출 금리는 5.02%로 전월(4.82%)보다 0.2%포인트 올랐다.

KB국민은행도 한 달 사이 0.14%포인트 상승했으며, IBK기업은행과 신한은행, 우리은행도 각각 0.08%포인트 오름세를 나타냈다. NH농협은행은 0.01%포인트 상승세를 유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광주은행은 지난해 12월 5.89%까지 올랐으나 상승세가 꺾여 지난 1월 5.98%에서 5.85%로 0.13% 내렸다.

특히 이들 시중은행이 중소기업에 마이너스대출을 시행하면서 산정하는 기준금리가 일제히 인상된 것은 우려를 낳는 대목이다. 은행권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에 자금조달비용을 얹어 정해진다. 한은의 기준금리는 8개월째 연 1.50% 수준으로 동결됐지만, 은행들의 대출 기준금리는 오르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금리인상 이후로 시중의 단기 변동금리가 오르면서 대출 기준금리가 올랐다"면서 "당분간 완만한 상승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관련 신용보증기금 한 관계자는 "중소기업은 시중은행에서 자금을 대출할 때 보통 변동금리로 대출한다"며 "자금 수요가 몰리는 시긴데다 금리가 높아져서인지 상대적으로 금리가 저렴한 신보에 대출에 대한 문의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금리가 오르면 기업들의 채산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다"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사정에서 기업 수익까지 감소하면 경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상의 맞춤형 입찰 정보제공 최대 실적

中企 지난해 763건 1109억 낙찰

광주상공회의소(이하 광주상의)가 지난 2010년부터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의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인터넷사이트(http : //kjcci.bidpage.co.kr)를 통해 제공하고 있는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이 지난해 최대 실적을 거뒀다.

28일 광주상의에 따르면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 서비스'를 통해 광주지역 중소기업들은 지난 해 구매 314건, 219억원, 공사 240건, 730억원, 용역 209건, 129억원 등 총 763건, 1109억원 규모의 낙찰실적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4년도 대비 낙찰건수(927건→763건)는 17%가량 줄었지만 낙찰금액(656억원→1109억 원)은 69% 늘어난 수치다.

광주상의의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은 지역 중소기업들의 판로 확보 및 영업활동 지원을 위해 광주시로부터 지원을 받아 지난 2010년부터 시설입찰, 용역입찰, 물품입찰, 매각입찰 등 전국의 산재된 발주처(조달청 나라장터, 국방부, 도로공사, 한국전력, 포스코, 한국통신, 아파트 단지 등)의 입·낙찰정보를 무상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사업이다.

광주상의는 입찰정보를 온라인으로 실시간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도 기업들의 전자입찰 낙찰률 향상을 위해 1대1 전문가 컨설팅과 연 4회에 걸친 입찰 실무교육을 진행했다.

광주상의는 올해도 '중소기업 맞춤형 입찰정보 제공사업'을 진행하며 연 4회 전자입찰 무료교육과 컨설팅지원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용을 희망하는 업체는 입찰정보 사이트(http : //kjcci.bidpage.co.kr)에 접속해 회원으로 가입한 뒤 승인을 받으면이용할 수 있다. 이용에 관한 문의는 광주상의 협력사업부 (062-350-5894)로 하면 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은행은 26일, 인천 청라지구 연희동에 자리 잡게 된 청라지점에서 김한(왼쪽 네번째) 은행장과 임직원, 외빈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라지점 개점식'을 가졌다.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 인천 청라지구 점포 개소…수도권 23번째

JB금융그룹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은 지난 26일, 인천 청라지구 연희동에 자리 잡게 된 청라지점에서 김한 은행장과 임직원, 외빈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라지점 개점식'을 가졌다.

청라지점은 광주은행의 19번째 수도권 전략점포이며, 기존 4개의 대형점포들을 합하면 23번째 수도권 점포다. 광주은행은 이번 청라지점 개점을 통해 경인지역 네트워크를 더욱 견고히 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특히 광주은행 청라지점은 청라 신도시 내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대형마트 등이 위치한 지역 중심지에 자리 잡아 많은 고객들의 금융수요를 충족시켜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광주은행의 수도권 전략점포는 직원 4명 정도가 근무하면서 적은 비용으로 수도권 영업력 강화와 고객 편의성 제고 등의 효과를 얻고 있으며, 예금과 대출 등 영업 전반적인 부분에서 빠르게 정착을 하고 있다.

광주은행 김한 은행장은 "수도권은 호남출신 상공인들이 경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곳"이라면서 "광주은행 전략점포를 수도권에 배치해 최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풍부한 자금을 지역에 끌어들이고 새로운 수익을 창출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밑거름이 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

호남 16개 하천 정비

영산강 제방·저수로 등

국고보조금 1583억 지원

광주와 전남, 전북지역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이 대대적으로 보수된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하대성)은 영산강, 섬진강 등 관내 16개(601㎞)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지자체에 국고보조금 1583억 원을 올해 지원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하천정정비사업 보조금은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위한 제방축제, 보축 등 치수사업(55건, 800억원)과 지역의 역사·문화의 반영과 건전하고 쾌적한 친환경적 하천환경 조성을 위한 친수사업(30건, 653억원)에 사용된다.

국가하천유지보수 보조금은 제방, 수문 등 하천내 치수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와 고수부지내 자전거도로, 산책로 및 주민편의시설 정비 등에 사용된다.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는 시·도지사가 시행해 왔으나 예산 및 인력부족 등으로 사실상 체계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2012년부터 국토교통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관리중이다.

이에따라 영산강과 섬진강의 제방, 저수로 등 국가하천 내 주요 시설물은 국가가 직접관리하고, 그 외 공원 및 체육시설 등 지역주민을 위한 시설과 영산강·섬진강을 제외한 14개 국가하천의 유지관리는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건설업계 유보금 관행 뿌리 뽑겠다"

정재찬 공정위원장 내달 실태 직권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사가 끝났는데도 하도급 업체에 대금의 일부를 주지 않는 건설업계 불공정 관행을 뿌리 뽑기로 했다.

정재찬<사진>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6일 광주전문건설협회를 찾아 업체 관계자들과 만나 "건설업계의 유보금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하며 다음달 유보금 실태를 직권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중소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으로 가장 많이 언급된 것이 유보금"이라며 "상당수 하도급 업체가 유보금 설정을 경험하고 있어 직권조사의 필요성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유보금은 하도급 공사가 끝났는데도 원사업자가 하도급 업체에 금액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 원사업자는 계약진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보수 담보를 유보금의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하도급 업체들은 일해놓고도 1~2년간 대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대표적인 불공정 관행으로 불만을 제기해 왔다.

정 위원장은 "서면실태조사에서도 일부 법 위반 혐의가 확인됐다"며 "다음달 유보금 실태에 대한 일제 직권 조사를 벌여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유보금 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위원장은 중소 건설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하도급 대금의 직불 방식에 대해서도 공정위의 역점 추진 과제로 소개했다.

직불은 사업 발주자가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직접 주는 지급방식이다.

공정위는 주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실무협의를 거쳐 빠르면 다음달 관계기관 하도급대금 직불제 확대 추진 협의회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 밖에 원사업자가 경쟁방식으로 최저가 입찰을 한 뒤 업체에 더 낮은 가격으로 낙찰을 종용하는 사례나 추가 공사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 부담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도 해소방안을 살펴보기로 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로또복권 (제691회)

당첨번호						2등보너스 숫자
15	27	33	35	43	45	16

등 위		당첨금(원)	당첨자수
1	6개 숫자일치	2,839,296,750	6
2	5개숫자+보너스 숫자일치	91,590,218	31
3	5개 숫자일치	1,662,352	1,708
4	4개 숫자일치	50,000	86,063
5	3개 숫자일치	5,000	1,455,528